

전라북도교육청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 발표

교과성적 80% · 출결사항 등 비교과활동 20% 반영

올해부터 전주, 군산, 익산 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중학교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는 가운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중학교 내신성적산출지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의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르면 중학교 교과성적 80%, 출결사항 등 비교과활동 20%를 반영한다.

항목별 총점은 300점이며 그 중 교과 학습발달상황 240점(80%), 출결상황

30점(10%), 봉사활동상황 15점(5%),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15점(5%)을 반영한 점수를 토대로 중학교별 개인 석차백분율로 산출하게 된다.

또 교과 내신점수 환산 평점(교과학 습발달상황)은 일반교과 성적 180점, 체육·예술교과 성적 60점으로, 240점을 만점으로 한다.

일반교과 성적은 성취도와 원점수를

활용하여 산출하고 체육·예술교과는 성취도로 산출하며 1학년 1학기말 성적부터 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한다.

교과성적 중 일반 교과 성적은 1-2학년과 3학년 성적을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하고, 체육·예술교과 성적은 전체 학년 성적을 통합하여 반영한다.

또 1-2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3학년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하고, 3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는 1-2학년 성적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민대학 개강식

2017년도 전주시민대학 개강식이 안동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올해 전주시민대학을 이끌어 갈 24명의 지도교수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박근아 전 JTV나운서의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주제의 특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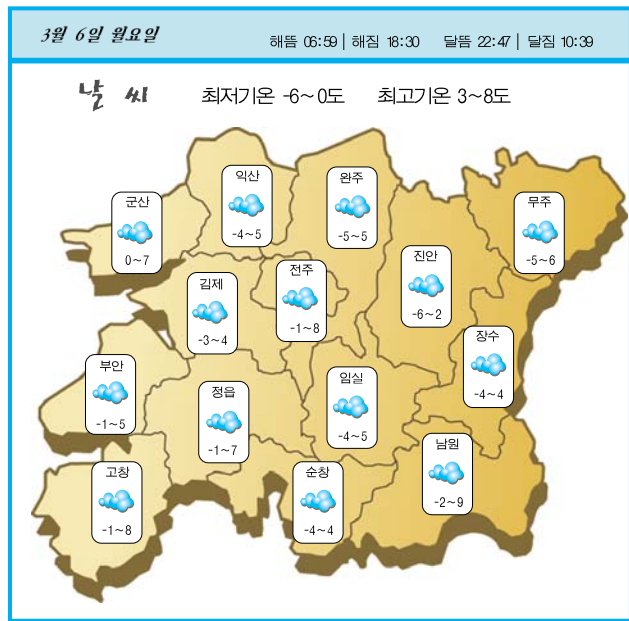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전주시민대학은 시민의 행복과 복서문화 확산을 위해 전주시가 마련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논어산책 △철학논술지도 △인문서양교과전임기 등 복서·자녀교육·인문교양 3개 분야의 단기(5개월)과정과 장기(8개월)과정 총 24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시민대학에서는 책 읽는 도시 전주 구현을 위해 복서동리길 집이 양성빈이 주·야간반으로 신설 운영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시민의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서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그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총 8500여명의 전주 시민대학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다양한 곳에서 재능기부로 나눔의 문화를 활발히 실천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교복·수학여행경비 40억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가구 자녀에 대해 교복구입비와 현장체험 학습비에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중·고등학교 고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구입비는 1인당 상한 2만원을 지원하며 총 1만여명에게 22억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 위소득 60%이하, 다자녀가구, 다문

화가정 자녀, 학교장 추천자 등이다. 타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나 동문회 등에서 지원을 받는 학생은 제외된다.

초·중·고·특수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1인당 상한 11만원

을 지원하며 1만5,000여명에게 총 17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 업무협약

전주시는 지난 3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강경환 원장, 김명지 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올해의 무형유산도시 전주'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시민들이 모은 전주의 소중한 기억·기록물 공개

전주시, 17일까지 시청 로비서 제1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 '전주, 기억하다' 개최

전주시민들이 소장해온 전주의 기억을 담은 기록물과 보존 가치가 높아 문화재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민간기록물 등 300여점이 최초로 공개된다.

시는 전주시청 로비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위원, 수집공모전 입상자, 완판본문화관장, 부채문화관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기록연구사 및 도내 기록연구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수집한 중요 민간기록물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하는 제1회 전주 기록물 전시회 개막식을 가졌다.

'전주, 기억하다'를 주제로 오는 17

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전주 관련 기록물 수집 공모전에서 수상한 문서와 생활용품, 일기, 사진 등의 시민소장 기록물과 근현대 전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록물 300여점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전주 시민의 생활상이 담긴 선친일기(1916년) △현재 존재하지 않는 완판본을 탁본한 어사묵전(1899년) △과거 한옥마을에 위치했던 문화연필 공장 사진 및 자료(1949년) △전주 관내도를 담은 국민보감(1957년) △과거 전주를 풍미한 다방·식당·싸롱·은

행이 만든 성남강(1970년대) △전주에서 최고 오래된 노인장인 기령당에서 소장한 일기 등 다양한 기록물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특별전시로는 전라북도 체육원로인 이인철 체육발전연구원 원장의 소장 기록물이 전시되고, 전주를 대표하는 완판본의 목판 제작 과정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국역 전주부사도 편찬해 선보인다.

이를 통해, 그간 인쇄된 완성본 책만 전시돼 이해하기 어려웠던 완판본의 제작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시회 첫날에는 현장접

수를 통해 △전주진북초등학교 서예 작품집(1982년) △사서삼경 중 하나인 전주판 대학(1800년대) 등 다양한 전주의 민간기록물이 기증돼 의미를 더했다.

시는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전주기록자산으로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시민이 모은 전주 기록물 전시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증발레이를 통해 지역인사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구도심 등을 방문해 기록물을 수집하는 등 기증캠페인을 연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

해피하우스센터, 집수리 공구 무료 대여

전주시 해피하우스센터는 전기드릴 등 총 49종의 집수리 공구를 완산센터 4개 센터에 비치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한다고 3일 밝혔다.

공구는 전주 시민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해피하우스센터에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 기간은 기본 2일이다.

부득이한 경우 하루 더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해피하우스센터는 서비스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자의선 살균소독기에 갈과 도마, 행주 등 주방 용품을 소독해주는 '클린(위생)서비스'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봄철 집수리가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저소득층 단독주택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관리에 민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무료 자전거 교실 운영

전주시가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생활교통환경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전주 시민들을 위한 무료 자전거 교실이 열린다.

전북자전거타기운동본부 전주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매주 화~토요일까지 주 5일간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 무료 자

전거 교실을 운영한다. 전주지부는 매일 50명 정도 인원을 모집해 자전거 타기 관련 이론과 안전하게 자전거 타기 실기를 병행해 교육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인 자전거 타기 캠페인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전주시 업무협약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